

그럴듯한 것

이세준

그럴듯한 것

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냐는 그의 물음에 나는 그럴듯한 것을 그린다고 대답하고 싶었다.

가증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럴 듯한 것을 내가 정말 그럴 듯하게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듯한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과 그럴 듯한 것의 차이, 그 간격 안에 온갖 지적인 허영과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망, 절망적인 시기심과 두려움이 담겨있다.

나는 지금껏 그럴 듯한 모든 것들을 온 힘을 다해 증오했다. 그것들이 주는 그럴듯함에 진저리를 쳤다. 그것이 보다 더 그럴듯할수록, 더 진짜 같고 더 무언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나는 점점 더 슬퍼졌다.

태도가 목적이 될 수 있을까? 태도 자체가 목적이 되려는 의도가 없다면 태도는 목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태도를 목적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태도는 태도로 남을 뿐이지 않을까? 그러면 태도가 목적이 된다고 해도 공허하지 않을까? 의도하지 않은 목적은 유령처럼 빈 공간을 배회할 뿐이다.

다시 그럴듯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나는 언젠가부터 그럴듯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태롭고 비틀거리는 정서에 매료되었다. 싸구려 키치의 정신을 은근히 숨기고 새로운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몸짓이 그들이 의도치 않은 새로운 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딘가에서 가지고 왔을 싸구려 레퍼런스는 빈곤한 현대인의 향수를 자극하고, 주제가 없기에 공허한 주변부만 외롭게 남아서 지엽적인 소리를 낼 때, 마치 이국의 항구에서 명멸하는 불빛들처럼 외롭고 실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2019]